

사도들은 살아있다!

지난주 여러분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아마 하느님에 의해 그곳에 보내졌을 것이라는걸 알고 있었습니까? 지난주 여러분은 직장에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보내졌을 때 예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가능했었나요? 또는 가정에서 부모님의 다툼속에 있을 때 여러분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나요? 아니면 여러분은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무엇인지를 진심어린 이메일로 물어보셨나요?

• 지난주, 내가 누군가가 한 일로 매우 상처를 받았고, 그것에 대해 부드럽게 그에게 맞았는데, 그러나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디게 하셔서 내가 그곳으로 그분을 모셔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졌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이치에 맞게 됩니다. 오늘의 구절은 ‘사도들은 살아있다!’ 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보내지셨고, 그래서 우리도 보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의 미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활기차고, 평화롭고, 강합니다.

예수님께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요한20:21-22). 이 사건에 대한 네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1. 언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밤 동안입니다. 지난 주 말씀드렸듯이 요한 복음 속에 나오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부재를 나타냅니다(<http://thejustmeasure.ca/2020/04/12/capacity-to-suffer-capacity-to-love/>).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꽤 자주 있는 일입니다.
2. 예수님께서서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분의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감당할 수 없거나 도움받을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닥칠 일에 맞서고 싶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서는 ‘평화, 평화’라고 말씀하십니다.
3.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을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도 세상에 그렇게 되야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Cf. Jn 13:20). 이 진실은 전환점이 됩니다. 우리가 집에 가서 그 순간, 예수님과 일맥상통하는 사람은 우리뿐일 수도 있고, 그분의 진실과 사랑을 우리 가족에게 말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모든 성향과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지나치게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극도로 의도적이고 이성적이 됩니다.
4.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숨으로 불어 넣는 것은 생명을 주는 신호로,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봉헌되신 것처럼 우리가 봉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f. Jn 10:36). 우리는 언제 성령을 받았습니까?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에서입니다. 이 두가지 행동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힘과 강인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 이것은 우리가 약하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 “저스틴 신부님, 나는 다른 임무를 맡을 수 없어요. 나는 이미 지치고 근심스러워요,”라고 하면, 나는 “다른 임무를 맡을 필요는 없어요. 매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며, 부름 받은 일을 하고 있다면, 이미 그분의 사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라고 답할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당신의 사명이 아니라 그분의 사명이며, 당신의 것이 아닌 오직 그분의 힘으로만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상처 치유자들은 그들의 임무를 완수하고 그들이 상처받는 동안 그들 자신을 내어 줍니다. 때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부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줄 때 더 살아나고, 우리가 주어야 할 것은 예수님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는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가지 행동 사항:

1. 지금 당장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번주에 저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당신께서 가장 필요로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런다음 그분께 준비시켜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난주에 나는 온라인 채팅에서 그들의 부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을 보고 매우 고무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을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적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구체적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번 주에 다시 대담하게 행동해 달라는 뜻으로 한 문장으로 적어 봅시다: 예수님은 나를 -----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하느님께서는 나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그분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돕도록 보내십니다: 그분께서는 나를 약한 것을 위한 곳으로, 사람들의 고통을 듣는 곳으로, 두명의 친구에게 전화하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임무를 적으면 그 위에 나의 사제의 축복을 주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하겠습니다. 농담인거 아시죠?!

2. 교구 가족의 사명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재정적으로 기부를 시작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온라인으로 바꾸기 전의 정기적인 교구 수입은 한달에 \$38K였고, 지금은 \$6K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하게도, 아직 전 직원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아시죠? 알파를 8번 이상 운영하면서 436명의 손님들과 그 중 성당을 다니지 않는 28%와, 교구에서 가장 큰 Faith Studies(신앙 연구) 프로그램을 가졌고, 569명은 디스커버리를 끝냈고, 128명은 교구 리더십 회의를 하는 임무를 하고, 한주간 신학생들을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나라를 오게하기 위한 영적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구 임무 수행은 한 명의 신부와 한 명의 비서가 이끌 수는 없습니다.

- 지난 5년간 우리가 사용했던 신학적 용어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6년만에 교구를 2배로 늘리고, 2년 만에 교구 센터를 위해 수백만 달러를 모으는 데 도움을 준 용어입니다.
- 우리가 직접 다루지 않은 희생적 관대함의 새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COVID-19 위기에서 적절한 것인 희생적 기부는 우리가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구에 속해 있는 407가구에 돌봄 전화를 걸었는데(136통은 자동응답이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13명이 실직했고, 2명은 몇시간이 단축됐기 때문에 희생 기부가 줄어들면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 몇몇은 재정적으로 투자에 영향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항상 자유의지로 베풀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희생이란 무엇입니까?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바라시는 것을 재평가 할 때입니다. 스콧 한은 “우리는 ..기도할 때, 제단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 우리가 성체의 주님을 보고, 아무것도 제지하지 않고,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바치시는 주님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주고 있다고 솔직히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우리가 해야 할 만큼 많은 것을 주고 있을 것이다(Signs of Life, 217).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에게 안정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 신학생 제롬로블스를 기억하십니까? 한번은 내가 차가 없을 때 제롬이 나를 랭리에 있는 어머니덕에 태워다 준 일이 있었는데, 그가 일하기로 선택한 성체조배실 수리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서는 이것이 좋아보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진짜로 멋져지길 원하세요?” 나는 그에게 “제롬, 너 지금 여기에 있는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거니?”라고 말했습니다.

- 나는 우리 교구 가족을 위한 큰 꿈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구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이며, 우리가 결코 도울 수 없었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큰 기회입니다: 우리의 미사가 1만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우리의 간증을 필름으로 찍어서 하느님께서 여러분 삶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 나누고, 사람들이 믿음속의 이야기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알게하고 영감 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온라인에서 믿음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6월에 알파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비디오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나는 예수님께 올해 12명의 성인이 세례 받기를 원한다면 그들과 함께 여행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부탁드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통 받는 것의 3배가 될 것입니다.
 - 3주전 일요일, 나는 어떤 숙녀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고, 그녀는 “저는 오늘 제가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제 신부님의 강론이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이 시기에 내 자신을 반성하고 강화하는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우리의 임무 중 하나는 사람들이 위기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교구가족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웹사이트의 온라인 기부 페이지나 우리의 은행 계좌에서 매달 일정액을 빼가는 방법을 통한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많은 결실을 맺을 지를 모릅니다. 지난주 내가 CBC와의 인터뷰를 가졌을 때, 그들이 나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목적에 대한 나의 강론이 그들에게 강하게 와닿아 내 강론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신부님이 Footloose 춤추는 영상을 봤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오, 나는 그 영상이 좀 창피 했지만, 나는 우리의 통신팀이 그것을 올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 되었습니다.

배런 주교의 스테판 콜버트에 관한 대단한 비디오가 있습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38greleOBYM>). 콜버트는 그가 10살때, 그의 아버지와 두 형제들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것에 대해 한번도 분개한 적이 없었고 감사함에 대해 남겼습니다 (<https://www.gq.com/story/stephen-colbert-gq-cover-story>).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콜버트는 반지의 제왕의 작가인 J.R.R. Tolkien가 처벌이나 어려움을 하느님의 선물로 보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 그리고 배런 주교가 톨킨이 어디서 이런 관점을 얻었는지를 묻자, 이것은 모르겐 신부가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를 다시 깨어나게 했다는 신부님의 이야기로 부터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르겐 신부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법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1845년 성인 헨리 뉴만이 영국에서 천주교 신자가 되었을 때, 영국은 반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만은 보내졌고, 예수님의 진실과 사랑을 모건 신부에게 전달했습니다. 모건 신부는 보내졌고, 믿음과 지혜를 타고 톨킨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톨킨은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을 알았고, 콜버트를 도운 것은 그의 글이었습니다.
- 이번주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의해, 아마도 어려운 상황으로, 그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데려오기 위해 보내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살아있습니다!